

제국과 ‘여성 혐오(misogyny)’의 시선*

-재조일본인 가타오카 기사부로(片岡喜三郎)의 예를 통해-

이 선 윤**

ozroad@hanmail.net

〈目次〉

- | | |
|-----------------------------|-----------------|
| I. 서론 | IV. 『쇼와 일본의 부인』 |
| II. 모성 담론의 형성과 식민통치 | V. 결론 |
| III. 『유머수필 신선로』와 『현대여성의 해부』 | |

Key word : 가타오카 히스이(Kataoka Hisui), 여성론(discourse of women), 『유머수필 신선로』(*Humor Essay Shinseonro*), 『현대여성의 해부』(*Anatomy of Japanese Women*), 『쇼와 일본의 부인』(*Ladies of Showa Japan*)

I. 서론

가타오카 기사부로(片岡喜三郎, 1883-?)¹⁾가 1929년에 발표한 『유머수필 신선로(구우모아隨筆神仙戶)』²⁾는 세태 및 기행, 문화 등의 소재를 문화적 지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07-362-A00019)

**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HK연구교수. 일본근현대문학, 문화연구.

1) 片岡喜三郎(1883-?) 법명은 히스이(翡翠). 지바현립(千葉県立)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소학교 교장으로 근무한 후 1909년에 조선으로 이주했다. 이후 인천, 경성, 개성 등지에서 소학교의 훈도와 교장을 역임하고 1929년 11월에 퇴직 후 월간 『조선교육신문(朝鮮教育新聞)』을 주재하던 다카하시 쇼노스케(高橋章之助)의 뒤를 이어 조선교육신문사를 경영하며 집필 활동을 했다.

2) 片岡喜三郎(1929) 『구우모아隨筆神仙戶』 近澤出版.

식과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서술했다.

텍스트 전반에 걸쳐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눈에 띄이는 『유머수필 신선로』에 이어 가타오카가 집필한 책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현대여성의 해부(現代女性の解剖)』(1931), 『쇼와 일본의 부인(昭和日本の婦人)』(1934)이었다. 본 논문은 가타오카의 마지막 작품 『쇼와 일본의 부인』을 중심으로 식민지기 여성 담론 상황과 가타오카 기사부로 텍스트의 저변에 있는 여성 혐오(misogyny)의 문제를 연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 시대의 언설은 문학적, 사상적 정전(正典)을 중심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근대 이후 시대적 언설은 대중적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공유 가능해진 언어가 활발하게 교통(交通)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번역, 변형, 집적되며 형성되었다. 전문적 학자가 아닌 개인들의 언설의 역사적, 사회의 가치는 소수의 정전만으로 수렴될 수 없으며, 당시의 대중적 여론을 나타내는 중요 자료로서의 분석 가치를 지닌다.

가타오카는 20여 년의 교육자로서의 경험과 언론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식민지 지배층 일본인 남성으로서의 언설을 ‘교육’의 형식을 취해, 여성 및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은 남성을 향해 발신했다. 교육 현장에서 당시의 가장 새로운 여성층이었던 여학생, 여교사를 접한 필자에게 현대 사회의 변화 중 가장 래디컬한 움직임은 여성의 변화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각각의 본질과 본분이 정해져 있다는 가타오카의 사고에 이러한 근본적 질서의 동요는 큰 위협이었다.

두 권의 저서를 거쳐 가타오카의 여성론이 최종적으로 집대성된 것이 세 번째 저서 『쇼와 일본의 부인』이다. 이는 식민지 여성정책이 총동원체제 하의 여성동원으로 향해가는 길목인 1930년대 중반, 제국적 여성관이 한 재조일본인의 언론 및 집필활동을 통해 민간 언설의 레벨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본 논문은 희귀본이자 지금까지 일제 강점기 자료 연구에서 다루어질 바 없었던 가타오카 기사부로의 『유머수필 신선로』, 『현대여성의 해부』, 『쇼와 일본의 부인』을 최초로 조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쇼와 일본의 부인』을 중심으로 가타오카의 여성론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식민 초기부터 본격적인 전쟁 수행기 이전, 한 재조일본인의 여성 담론이 일본의 제국주의적 식민전략이라는 행보와 연동되는 양상을 포착하고자 한다.

II. 모성 담론의 형성과 식민통치

1) 식민지 여성 담론 연구의 출발

섹슈얼리티(sexuality, 성성)를 본질론적으로 논하는 비논리성 및 위험성은 성적 아이덴티티를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결정론적으로 규정함에 기반한다. 사회구성론은 이러한 본질론적 문제를 지적하며 성적 특성이 문화의존적, 관계성, 비객관적임을 명시했다.

일제강점기 여성에 관한 연구의 경우 1920~30년대의 근대적인 교육을 받은 소수의 신여성에 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³⁾ 이들은 여성의 존재방식에 대해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소수인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늘 경계와 비난이 수반되었다. 지배 권력이 원하는 이상적 여성상-모성을 제일 가치로 체현하는 현모양처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여성은 아름다운 ‘전통’을 흔드는 불온한 존재로서 배제되어야 했다.

2) 모성애와 군국주의

일제의 강제점령 이후 전시체제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식민지배세력이 각각의 정치적, 사회적 위치에서 상이하고 다양한 모성담론을 구성해낸 기간이었다. 남성들은 민족의 운명과 장래를 위해서라는 레토릭으로 여성의 모성성을 규정지며 여성의 사회진출을 견제하고 가정에 귀속 시키고자 했다. 일부 진보적 여성들은 점차 모성이 개인의 선택적 문제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일제는 식민 초기부터 현모양처주의를 여성교육의 이념으로 삼고 순종적 여성 양성에 주력했다. 그리고 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방침을 개정하면서 1930년대 말에는 여성교육도 군국주의화하게 된다.⁴⁾

최근 여성학자들은 군국주의의 개념과 가치는 가부장정치에 의해 지지되며 군국주의 국가에는 가부장정치의 구조와 관습이 체현되어 있어서 군국적일수록 보다 성차별주의적임을 지적해왔다.⁵⁾ 군국주의가 지향하는 전쟁은 국가적

3) 안태윤(2006) 『식민정치와 모성 : 총동원체제와 모성의 현실』 한국학술정보, p.13.

4) 안태윤, pp. 258-259.

규모의 힘과 폭력에 의한 타자 지배인데 이러한 전쟁의 원리는 가부장제의 원리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⁶⁾ 즉 전쟁이라는 조직화된 구조적 폭력은 공격성, 경쟁, 하이어라키(위계제), 감정 부인, 타자의 대상화라는 남성적 경험을 통하여 만들어져 온 가치체계로, 가부장제의 가치 기반과 동일하다.⁷⁾ 2차 세계대전시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서는 군국주의와 가부장정치 간의 밀접한 관계가 인적자원 재생산을 위한 모성의 강조, 산아제한 금지, 낙태처벌 등으로 나타났다. 전쟁기 일본 여성에게는 ①군인이 될 아이를 많이 낳아 황국신민으로 길러 나라에 바치는 어머니, ②근검절약으로 가정생활을 이끄는 주부, ③부족한 남성 노동력을 보충하는 생산자로서의 역할⁸⁾이 강조되었다.

3) 모성의 계보

모성은 근대와 더불어 생겨난 개념이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는 16세기 말에 처음으로 'being a mother'라고 단순하게 기재되었으며, 본격적인 개념화는 빅토리아 시대에 이르러서 진행되었다. ⁹⁾ 근대에 들어와서 모성이 중요한 여성의 역할로 부상한 배경 중 하나는 산업혁명이었다.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부상으로 일터와 가정이 분리되면서 남성과 여성의 활동영역이 구분되게 된다. 서구의 신학 및 철학에서는 아동을 불완전하고 죄 많은 존재로 가르쳐왔고 16세기의 신학자들은 어머니들의 과도한 애정은 아동을 타락시킨다고 보았다. 그러나 18세기 후반부터 아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모성애와 새로운 양육태도를 요구하는 출판물이 범람한다. 계몽철학의 유행도 이에 큰 역할을 했는데, 루소의 모성 예찬은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은 자연의 섭리라고 역설했다. 어머니의 사랑이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된지 2세기 만에 모성애는 자연적, 사회적 선으로 부상한 것이다.¹⁰⁾ 이러한 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아동이 잠재적 경제자원

-
- 5) Betty Reardon(1985) *Sexism and the War System*, Columbia University Press pp.14-15. 베티 이·레아돈. 山下史訳(1988)『性差別主義と戦争システム』(勁草書房)pp.28-29. 상동서 간접인용. p.17.
 6) 若桑みどり(2000) 『戦争が作る女性像』ちくま学芸文庫, p.31. 상동서 간접인용. p.17.
 7) Reardon(1985), 레아돈(2000) pp.21-31.
 8) 안태윤, p.19.
 9) Ann Dally(1982) *Inventing Motherhood-The Consequences of an Ideal*, London: Burnett Books p.17. 상동서 간접 인용. p.25.
 10) Elisabeth Badinter(1981) *Mother Love: Myth and Reality*, New York: Macmillan pp.29-30,

및 군사력으로서 국가이익을 위한 중요한 존재라고 인식된 점에 있다.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친 제국주의적 동향의 확장은 모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¹¹⁾ 국민국가에서는 인구 증가 주장이 대두되고 아동이 노동력이자 병사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국가자산이라는 인식이 확고해지면서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적 문제가 아동에 대한 책임의 명목으로 어머니에게 전가되었다. 어머니에게는 모성술(mothercraft)이 요구되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전통에 대한 과학의, 여성에 대한 남성의, 노동자에 대한 통치계급의 권위가 모성을 새롭게 규정¹²⁾하게 되었다. 모성교육에 대한 투자는 사회적 의료 서비스의 확대나 위생환경 개선보다 국가재정 비용이 절감되며 과세증액 등의 정치적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오리엔탈리즘은 서구적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반응이었다. 서구가 아시아 지역을 야만 또는 반야만으로 규정하면서 아시아는 ‘여성화’ 되었고 아시아의 여성들은 관능과 어리석음, 순종이라는 요소로 규정되었다. 근대 일본의 조선여성 담론은 당시 일본 사회가 추구한 제국주의적 비전의 향방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근대화란 사회시스템과 ‘문화젠더’라는 이원체제화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고, 여성과 식민주의 정치는 상호 구성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¹³⁾ 여성 담론은 이렇듯 제국 식민통치의 전략 및 제국의 젠더전략을 동시에 드러낸다.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의 지배 모델을 모방한 일본은 군국주의적 전 세력팽창기에 걸쳐 여성의 위치, 존재 의의를 모성으로 규정지어갔다. 일본의 근대국가 수립기에 메이지 정부는 모성에 관련한 첫 시책으로 낙태 금지를 시행하며 재생산 문제의 국가 관리를 시작했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도 국민의 체질 개선을 위해 모체의 건강이 필요함을 역설¹⁴⁾했고 국가적 목표의 달성을

117-127. 상동서 간접인용. p.27.

11) 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역. 『내셔널리즘과 젠더』박종철 출판사. p.74. 상동서 간접 인용. p.27.

12) 안태윤, p.30.

13) 이선이 「근대 중국과 일본의 언론매체에서 보이는 조선여성 표상 연구」 『동양사학연구』 제116집, p.248.

14) 하라 히로코(1996) 「여성의 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일본어 번역에 따른 문제: 일본사회정책에서의 여성과 어머니의 이미지」 『아시아 가부장제와 여성의식의 성장』(아시아여성학대회자료집). pp.44-45. 간접인용. pp.34-35.

위해 모성담론이 적극적으로 동원되었다.

기존의 조선사회에도 여성역할에 대한 전통적 담론은 존재했다. 설순의 『삼강행실도』(1434), 소혜왕후의 『내훈』(1475), 이덕무의 『사소절』(1775) 등 유교적 여훈서의 내용은 여성의 며느리, 아내, 어머니로서의 도리를 설파한 것이었다. 전통사회의 여성의 역할은 전적으로 사적인 영역에 제한되지만, 모성이 개입되는 순간 공적 이데올로기 실천의 협조자¹⁵⁾일 것이 요구된다.

일제의 조선인 교육은 제국의 신민을 길러내는 것을 요체로 했다. 여성교육에 있어서는 현모양처주의적 교육이념에 따라 식민 체제에 순응하는 순종적 여성 양성에 주력했다. 16) 제1차 조선교육령(1911) 중등교육목적에는 여자고등 보통학교를 ‘부덕을 기르고 국민된 성격을 도야하고 생활에 유용한 지식기능을 부여’하는 곳으로 규정했다. 제2차 교육령(1922) 교육목적에는 신체 발달에 관한 항목이 추가되어 모체 건강에 주목했다. 1927년부터는 일본 국민으로서의 정신 함양을 목표로 여학교부터 우선적으로 공민과가 신설되었다.¹⁷⁾ 이러한 교육시책은 모성 교육을 식민통치와 연동시켜 도구화해가는 과정이었다.

4) ‘여성 혐오(misogyny)’의 구조와 배제의 공동성

성별 이원제의 젠더 질서에 깊숙이 심어져 있는 ‘여성 혐오’로부터 여성과 남성 모두는 자유롭지 못하다. ‘여성 혐오’는 남녀에게 비대칭적으로 작동하는데, 남자에게는 여성멸시, 여자에게는 자기 혐오로 나타난다. 우에노 치즈코(上野千鶴子)가 인용하는 오키모토 다이자부로(奥本大三郎)의 말처럼 ‘여성 혐오 사상의 소유자는 여성에게 무관심할 수 없다’.¹⁸⁾

배제란 공동행위이다. A가 B에게 ‘여자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라고 발화하는 경우 이는 남성A가 여성B에게가 아니라, 다른 남성C에게 여성의 타자화를 공유하고 ‘우리 남자들’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발언이다.

15) 조경원(1996) 「유교 여훈서의 교육원리에 관한 철학적 분석」 『여성학논집』 제13집. p.281. 간접 인용. p.58.

16) 한국여성연구회(1992) 『한국여성사-근대편』 풀빛, p.61.

17) 이규환(1969) 「日帝時代の 中等學校 教育課程에 對한 研究」 『韓國文化研究院 論叢』 제15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pp.217-246.

18) 上野千鶴子(2010) 『日本のミソジニー』 紀伊国屋書店, pp.9-10.

그 자리에 여성이 부재해도 차별은 완성된다. 이에 B가 반대하는 경우, 남성 아이덴티티구성에 실패한 A는 B를 일탈시킴으로서 반격한다. 굳건한 성별이 원제 아래에서 남성으로부터의 일탈은 ‘여성화된 남성’과 동의어가 된다. 이러한 ‘남자 말하기(男語り)’의 성립은 공범관계에 기반하며 동일화를 강요한다. 우에노의 이러한 설명은 세지웁(Eve Sedgwick)의 ‘호모소셜’(남성들 사이의 유대) 논의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성 연대에 의한 일본제국의 국민국가체제는, 군국주의적 색채를 강화해 가는 과정에서 모성 개념의 사회성과 역사성을 제거하고 교육을 통해 본질론적 절대성을 덧칠한 것이다.

Ⅲ. 『유머수필 신선로』와 『현대여성의 해부』

1) 『유머수필 신선로』의 주제별 분류와 여성 혐오

가타오카의 첫 수필집 『유머수필 신선로』에 실린 글을 주제별로 분류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유머수필 신선로』의 주제 분류

주제	제목
기행, 자연	「여름 팔경」, 「불국사 참예」, 「금강산 유람」, 「솔개와 까치」, 「닭 울음소리」, 「한강 유람」
문화, 취미	「쟁과 샤미센」, 「술잔 이야기」, 「술병 고찰」, 「가쓰미쓰 무네미쓰 합작」, 「바둑의 가치관」
세태 비판	「대굴대굴 잡기」, 「정거장」, 「결혼문제」, 「새로운 생명보험 제안」, 「졸부의 집」, 「실업자」, 「안전시대」, 「소품 벗」
매너	「공중목욕탕 소견」, 「전화의 어려움」, 「술 따르는 일곱 가지 버릇」
인정담	「애수」
건강	「영양에 관한 설」
일상, 회고, 인물	「야스 씨」, 「공공공어」, 「이사 회고록」, 「최근에 오간 편지」, 「기묘한 유서」, 「세이 세이 기이쓰」, 「소꿉 친구」

기행문이나 자연의 묘사를 다룬 글이 6편, 문화예술 및 취미에 관한 글이 5편, 세태비판을 다룬 글이 8편, 매너에 관한 글이 3편, 일상이나 회고담을 주제로 한 글이 7편, 인정담, 건강에 관한 글이 각각 한 편 씩으로 총 31편의 글이 실려 있다. 요리나 주도, 사회생활의 예법, 바둑, 미술 등 문화적 측면에 관한 깊은 관심이 투영된 글이 많다. 직접적으로 여성을 소재로 한 제목이 많이 눈에 띄지 않는 것에 비해 여성에 관한 화제를 많이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또한 변화에 대한 반감도 포착된다.

『대굴대굴 잡기(雜記)』(pp.67-102)는 열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글인데, ‘대굴대굴 굴러가는 인간의 마음은 한편에서 보면 절조 없고 정견 없고 타락한 것’이라고 변화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드러낸다.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는 진보이고 향상이고 개조라 할 수 있다’고 부연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 강조되는 것은 ‘변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다.¹⁹⁾ 가타오카는 현실의 모순을 개혁하고자 하는 움직임, ‘기회주의’, ‘이기주의’라고 비난한다. 이러한 비난에서 가타오카의 보수적, 체제 온존(溫存)적 입장이 유추되며, 이러한 논의는 다음 단락에서 바로 여성의 행동에 대한 불만으로 연결된다.

‘여학생이 극단적으로 짧은 양장 스커트를 입고 네리마 무(練馬大根)같은 허벅지를 45도 각도로 벌리고 전차 의자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태도’는 ‘유행의 힘이 이렇게 여자의 마음을 대범하게’ 만든 것이라고 사회적 배경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²⁰⁾ ‘여성운동의 열기는 상관없지만’이라고 선을 긋는 부분에서 오히려 가타오카가 배제하고자 하는 요소가 엿보인다.

이 텍스트에는 성인 여성에 대한 혐오도 명확하게 표출되어 있다.²¹⁾ ‘여자

19) 인간 생활은 기회주의적이며 이기주의적이다. 자신의 상황으로부터 유신, 무신, 일원, 이원, 내지는 정신, 물질, 영육, 자력, 타력의 논의가 발생한다. 자동차의 질주에 욕을 퍼붓는 사람은 자동차를 타지 않는 사람이고, 혼장을 단 것을 보고 비웃는 사람은 혼장을 갖지 못한 사람이다. 노동문제는 노동으로부터, 계급투쟁은 부르주아 계급으로부터, 여권신장은 여자로부터, 수평운동, 자유운동 모두 자신의 상황에서 일어난다. 가타오카 (1929), p.72.(이하 번역은 필자)

20) 이러한 부분에서는 환경을 들어 사회구성적 관점을 중시하면서도, 전반적인 논지는 생물학적 결정론에 가까운 본질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는 어린이와 비슷하다'고 어린아이를 지적 성숙도가 떨어지는 대상으로 평가할 때에는 이에 가까이 분류하지만, 성인 여성 혹은 경험이나 능력을 쌓은 여성에 대한 불쾌감을 강하게 표출할 때에는, '마음이 더러워진'이들로 기술된다.

『유머수필 신선로』의 여성에 대한 언급은 대부분이 비난²²⁾의 문맥에서 진행되는데 긍정적 문맥은 출산과 양육 등의 재생산에 관련된 여성성에 한정되며 피상적인 감상에 머무른다. 또한 재생산에 관련한 소재 중 여성운동에 관련된 움직임에 관해서는 조소('산아제한 문제의 유력자인 생어 부인²³⁾)조차 보통사람들처럼 쉽게 아이를 낳아 남들을 웃게 하는 아이러니', p.290)가 표출되어 있다.

2) 『현대여성의 해부』의 주제별 분류와 여성 혐오

가타오카의 두 번째 수필집 『현대여성의 해부』(1931)에 실린 총 25편의 글을 주제별로 분류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
- 21) △정 몇 위, 혼 몇 등, 고등과 5등, 여학교 수석교원 이런 말만 늘어놓아도 요즘 여자들의 허영심을 만족시키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이런 지위를 쟁취하고, 주위 놈들을 눈 아래로 깔보면서 여자의 본성인 성욕과 연애를 잠시 보류해두었다가 자부심 가득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에는 이미 올드미스라는 존칭으로 불린다. 17.8세의 꽃다운 나이일 때조차 미인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 반은 남성화된 요즘 자신의 얼굴을 보니 보류해두었던 여성성이 갑자기 되돌아와...(중략)... 여자의 독신주의는 폭탄을 안고 자는 것보다 위험하다.(p.79) △폐경후의 여자 마음만큼 끈질긴 것도 없다. 전차 같은 곳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커다란 엉덩이로 파고 들어가 앉으려는 아줌마의 심정야말로 좋은 표본일 것이다.가타오카(1929), p.80.
- 22) △여자의 몸가짐을 완전히 망가뜨려 여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소홀히 다루고 이를 보호하기를 게을리 한다면, 이미 여자의 마음은 사라진 것이다. (가타오카(1929). 본각주 이하 동일. p.77.)
△여성은 땅은의 백성이다. 소를 말로 잘못 알고 타 놓고 소의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어제의 아군이 오늘의 적,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p.80.)
△타락을 되풀이하고 규범을 일탈해 닳고 닳은 여자야말로 대책이 없다.(pp.80-81.)
△품행이 단정치 못한 여자가 날뛰는 배경에는 반드시 이를 조종하는 깡패라는 흑막이 있다. 개들을 부추기면 기세가 과격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미친개를 상대하는 사람은 없다. 여자가 계속해서 달려드는 것은 이 때문이다. (p.81.)
- 23) Margaret Higgins Sanger(1879-1966). 미국의 산아제한 활동가.

<표 2> 『현대여성의 해부』의 주제 분류

주제 분류	제목
남녀의 성차 및 여성의 특징	「남자가 인간인가, 여자가 인간인가」, 「여자의 임무와 대가」, 「동물샘 자극술」, 「수치의 가치」
외모 및 복장	「여자의 행복은 어디에」, 「목숨 다음으로 중요한 옷」, 「정(情)의 세계」
사회와 여성	「부인직업관1」, 「부인직업관2」, 「부인직업관3」, 「여성 참정권」, 「여자 교육 문제」
비합리와 여성	「여자와 미신」, 「천리안과 여자」, 「히스테리란」
결혼, 주부	「연애의 문제」, 「결혼의 제문제」, 「질투심과 여자」, 「주부관1」, 「주부관2」, 「주부관3」, 「주부관4」
기타	「어차피 그렇겠지」, 「다양한 여성 표현」, 「현대적 여성의 일대기」

주제별로 살펴보면 남녀의 성차가 4편, 외모 및 복장이 3편, 사회와 여성의 문제가 5편, 여성적 특징을 비합리성과 연관시킨 것이 3편, 결혼에 관한 것이 7편, 기타 주제가 3편이다. 『현대여성의 해부』는 교육자이자 언론인으로서 사회를 향해 발신하고자 한 여성론이 개인적 감상을 다수 포함하는 형태로 실려 있으며 마지막에는 소설이 게재되어 있다.

「여자의 임무와 대가」(pp.7-11)에서는 동물의 암컷이 교미후 수컷을 죽이는 예에서 출발하여 여성에 대한 공포감을 드러내고 있다. 「여자와 미신」, 「천리안과 여자」에서는 집필 당시로부터 14,5년 전 빈출했던 천리안 사건을 언급하며 그 주인공의 대부분이 여자임을 들어 히스테리와 비합리, 그리고 여자의 연관을 주장한다.(pp.54-58) 「히스테리란」(pp.102-104)에서는 히스테리를 자궁의 이상에 유래한다는 주장을 소개했다. 당시 일반인들은 상식을 벗어난 여자를 히스테리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부인직업관 1, 2, 3」에서는 여교사를 추부(醜婦), 간호사는 부정조(不貞操)의 대표적 직업이라고 비난하고(p.111) 전시기의 수요 때문에 여성 노동이 요구되었을 뿐이므로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남녀의 성차나 직업부인 비판 등이 『쇼와 일본의 부인』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전개되므로 이상의 두 텍스트를 간략히 소개했다.

IV. 『쇼와 일본의 부인(昭和日本の婦人)』

1) 주제별 분류

『쇼와 일본의 부인(昭和日本の婦人)』(1934)은 총29개의 글로 이루어져 있다. 주제별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쇼와 일본의 부인』의 주제 분류

주제 분류	제목
소비생활과 직업생활	『소비생활과 직업생활』, 『직업소비 양생활의 고충』, 『소비생활과 자연』, 『직업부인의 현상』, 『재원(才媛 ²⁴)의 한 코스』
모성애	『맞벌이 부부의 일례』, 『모성애와 일본부인』, 『부인행복론』, 『서양부인의 생혼』
여성의 교양 및 미덕	『세상을 운택하게 하는 취미』, 『분도추양의 미덕』, 『언어 사용과 문장』, 『여자와 좌작진퇴(坐作進退)』, 『아름다운 정(情)의 바다』, 『부인과 사교』, 『가재도구와 가구의 맛』, 『술에 대하여』, 『여소화에 나타난 도가(道歌)』, 『온나이마가와쇼』
일본의 전통	『인간과 천직』, 『여자와 수양기(修養期)』, 『일본취미와 가옥』, 『이중생활의 비판』, 『마음의 화장』, 『미국 부인관』, 『개성과 풍격』
능력부족	『요리의 핵심』, 『인생과 미신』, 『상식과 감식(鑑識)』

가타오카의 『쇼와 일본의 부인』은 ‘일본을 세계 강국으로 만든 공적의 이면에는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정신을 가진 일본 부인의 힘이 있었던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서문을 쓴 경성사범학교장 와타나베 노부하루(渡邊信治)는 본서가 ‘근래 서양의 영향으로 일본의 전통적인 부인의 미풍이 파괴되어 가는 것을 우려하여 쇼와의 부인으로서 진실한 일본 부인의 생활로 돌아가게 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글’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소비생활과 직업생활을 대비시킨 글이 5편, 모성애를 강조하는 글이 4편, 여성의 미덕을 논하는 글이 10편, 일본의 전통을 소재로 하는 것이 7편, 여성의 능력을 한정짓는 글이 3편이다.

2) 소비생활 대 직업생활의 대조와 여성 영역의 설정

『소비생활과 직업생활』²⁵⁾에서는 직업생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가정에서

24) 원문. 才媛의 오기로 보임.

의 ‘소비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직업생활은 부인의 생애중 ‘일정기간’의 문제일 뿐이라며, 낮게 평가했다.

「소비생활과 자연」(pp.8-12)에서는 자연에 순응하는 것과 평범함이라는 개념을 등가에 놓고 남성에게는 이를 넘어서는 기발함, 비범함이라는 개념을 부여한다.

여자는 역시 평범한 것이 제일이다(女は平凡に限る). 남자도 평범하고 싶으나 직업생활에는 기발함이 요구된다. 세상을 상대로 함에 있어서는 평범함보다는 비범함이 높이 평가된다....(중략)...자연에 순응하는 것이 인간생활의 요청이며 여자는 소비작업을 주관하는 것이 천직이라는 관념을 가지는 것이 메이지기 이래로 약 50년에 걸친 부인문제의 바른 정답이다. 이 관념에서 출발하여 활동하는 의지가 강한 부인을 쇼와 일본의 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메이지기 이후 서양 문명의 유입으로 현재와 같은 나라를 수립했지만 문물 도입을 다 마친 오늘날 뒤를 돌아보면 “서양의 부인사상 따위는 쓸모없는 껌테기(糞)”라는 인식이 이러한 ‘쇼와 일본의 부인’ 상의 배경에 있다. (『인간과 천직』, pp.12-14)

위와 같은 논의는 같은 시기 조선에서 발행된 타 일본어 매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선 및 만주』에는 「미인군상 직업부인의 명암」(제305호, 1933.4. pp.24-34)에서 간호부 등의 직업여성 및 부인들에 대한 악의적 루머²⁶⁾가 다수 게재되었다.

25) 최근에는 직업생활을 하는 부인들이 많고 사회도 어느 정도의 직업 생활을 하는 부인을 인정하는데, 이는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그 사람의 일정 기간에 관한 문제이지 생애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대개는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곳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소질에 어울리는 소비생활을 따르게 된다. 극히 드물게 직업생활로 생애를 마치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이는 예외이며 그런 경우에는 대개 보람 없는 인생인 법이다. 소비재료만으로는 삶의 보람이 될 수 없다. 좋은 소비생활을 영위해야한다.(pp.1-4)

26) 이 간호부들은...(중략)..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모여서 남성의 손을 잡고 다리들...(중략)...즉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음과 동시에 수많은 남성의 응대에 익숙해져서 인정도 인위적으로 적당하게 응용하는, 외과용(?)기술을 체득하고 있다...(중략).. 근대의 총아는 역시 백화점. 중소 상공업자를 울리는 것도 백화점. 경성의 유한부인은 명석함이 결여된 단세포들이 많기 때문에 백화점을 오락장처럼 생각하고 밤이나 낮이나 드나들고 있다....(중략).. 이외에 여급, 예기, 창부 역시 제일가는 직업부인으로, 대략 내선인을 합쳐 2천명 가까이 된다.

본격적 전쟁 수행기에 한 발 더 다가선 1936년 8월 『중앙공론』제281호에 게재된 이케다 기요시(池田清志)의 「직업여성이며,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라(1)」²⁷⁾는 그 제목처럼 직업여성에 대한 경고를 실고 있다. ‘빨리 직장을 버리고 여성 본래의 사명인 가정으로 돌아가 현모양처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라’고 외치는 이 기사는, 이탈리아와 독일의 직업여성들이 남성들의 직장을 차지해 노동시장이 여성에게 압도당했다고 전하며, 여성을 직장에서 내보내기 위한 방침과 선전 등이 시행되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현대의 백러쉬(Back lush. 반페미니즘, 반여성적 주장)담론과도 유사하다. 이들은 불안의 해소를 위해 여성 및 여성운동을 일괄적으로 폄하, 왜곡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3) 모성애 전략과 여성적 미덕: ‘분도추양(分度推讓)’과 ‘수치심’

「맞벌이 부부의 일례」²⁸⁾에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 맞벌이 탓인지도 모르지만 아이를 기를 수 없다는 것은 일가의 비극’이라고 단언하고 재생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모성애와 일본 부인」에는 이 시기에 여성의 모성애 담론이 이미 사회적으로 안착되어 있음이 드러난다.²⁹⁾ 모성애는 국가주의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제국 일본의 노동력이자 병사력 증강으로서의 출산장려와 모성애를 연관시켜 주입시키고 있으면서, 모성애가 쇠퇴했다고 규정하는 서양과 일본을 대립시킨다. 이러한 내용은 전통의 강조와 관련된 글에서도 다루어지는데, 서양적인 것과 진보적인 변화를 부정적 가치화하고 이에 대비되는 일본적인 전통에 모성애 담론을 접속시킴으로서 내셔널리즘의 고양과 국가를

27) 김효순 외 편역(2012) 『조선 속 일본인의 에로경성 조감도: 여성직업편』 문, pp.47-51

28) 片岡(1934) pp.40-42

29) 서양인들은 표면적으로는 군자같은 얼굴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면식도 없는 남자가 댄스를 추거나 팔짱을 끼고 걷거나 나체화를 보고 즐기면서 부끄러운 기색이 없다.(중략)...서양인은 부부애가 두텁고 부모자식간의 애정이 희박한 공리주의이다. 자연의 모성애를 잃어버린 것이다.....(중략)...일본이 강한 것은 일본 부인이 모성애가 풍부하기 때문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일본인이 서양여성의 영향으로 정조 경이나 신아조절 같은 한심한 것에 감복하고 일본여자가 서양여자가 되어 버리면 일본의 쇠퇴와 멸망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중략)..‘여성은 약하다, 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은 일본에 있어서 중요한 금언이다. 약한 여자는 그다지 필요가 없지만 강한 어머니는 일본의 기둥이다. (「모성애와 일본부인」)片岡 (1934) pp.42-46

지탱하는 국민의 생산 장려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자와 수양기(女と修養期)』³⁰⁾에서는 ‘모성’에 근거한 육아 등을 여성의 ‘본질적’ 일로 규정³¹⁾하고 있다.

니노미야 손토쿠³²⁾는 도덕과 경제의 조화에 대해 보덕(報德)사상을 통해 논하였는데³³⁾ 지성(至誠), 근로(勤勞), 분도(分度), 추양(推讓)이라는 네 가지가 바로 그것이다. 이 네 항목 중 분도와 추양이 여성의 영역이라고 가타오카는 배분한다.³⁴⁾ ‘분도추양의 정신은 소비생활에서는 특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욕망을 억제하는 분도,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타인에게 베풀고 스스로 겸손하면서 타인의 행동에 존경과 감사를 품는 것이 추양의 덕이 여성에게 요구되는 일본의 전통적 미덕이며, 이 논리에 따르면 보덕의 나머지 두 가지 항목인 지성, 근로는 여성이 배제되어야 하는 영역인 것으로 2)의 여성 영역의 설정으로 귀결된다.

『아름다운 정의 바다』³⁵⁾에서는 여성적 미덕의 근간을 이루는 또 하나의

30) 片岡(1934) pp.15-18

31) 여자의 본질적 일은 주로 근육의 특수한 근로가 수반되는 정신작업이다. 남자도 직업에 따라서는 정신근로와 함께 육체근로도 많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정신근로가 압도적이다...(중략)..남자는 제멋대로이며 전제군주적 태도를 취한다고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외부에서의 정신적 고뇌가 여자의 육체노동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중략)..근육적 근로가 여자를 완전한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다. 이 근로가 있기 때문에 신체가 건강하고 장수의 근원이 된다. 片岡翡翠(1934) p.16

32) 二宮尊徳(1787-1856) 에도시대 농민사상가.

33) 후지와라 하지메 저, 황영식 역(2006) 『고이즈미와 일본 광기와 망령의 질주』 시대의 창 p.188

34) 서양인들은 권리와 의무에 대해 떠들지만 일본에서는 분도추양(分度推讓)에 대해서 말한다. 이는 매우 큰 차이이다. 분도는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을 의미하며 추양은 자신이 양보하는 것이다. 메이지 이래의 부인문제의 대부분은 권리 주장의 문제이다. 그러나 아무리 주장을 해도 적당하지 못한 것은 잘 될 리가 없다. 본고장인 서양에서 부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많지만 부인이 정치적으로 달성해낸 것은 없다. 일본에서도 서양의 영향으로 참정권 획득운동이 일어났는데 아직도 참정권은 부여되지 못했다. 직업부인문제는 꽤 실현되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수준은 뻥한 것으로 당초 기대되었던 정도는 아니다. 여자가 국장이나 과정, 전무, 중역 등의 중요한 지위에 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없다. 남자도 여자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직분에 만족하고 자연에 순종하여 주어진 자신의 발을 경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분도추양의 미덕』)

35) 이 수치심은 모성애의 행사 이전이 가장 현저하다. 17,8세 때에는 어디에도 수치심이 동반된다. 이 나이 때에는 별것도 아닌 일에도 잘 웃으며 이는 희망에 찬 웃음이라서 아름답다...(중략)...이 수치심은 모성애의 발로와 함께 어쩔 수 없이 감소한다. 여자도

감정적 요소로 ‘수치심’을 들고 있다. 나이를 먹은 여성에게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적다고 지적하며 17,8세 여성의 아름다운 웃음과, 옛날이야기 속 심술 꾀은 할머니·선량한 할아버지와 대조적인·를 대비시킨다. 여성의 미덕을 위해서는 여성의 오락 추구 또한 배제해야 하는 요소가 된다. ‘향락’, ‘허영’의 추구를 개탄하는 이면에는 직업여성 혹은 신여성/모던 길·이 남성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는 부풀려진 박탈감이 있다. 이는 앞서 지적한 현대의 여성혐오의 문제와 기본적으로 같은 구도이다.

비슷한 시기에 『조선 및 만주』 제306호(1933.5)에 게재된 「여교사의 해부」³⁶⁾에서 여교사는 ‘모던을 아주 좋아’하며 불량스럽고 히스테리한 인물로 그려진다. 앞서 인용된 간호사의 예처럼, 당시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직업여성의 이미지는 혐오의 시선이 부착되어 있었다. 여성 혐오로부터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자유롭지 못하므로 당시 이러한 매체를 접하는 많은 여성 독자들도 직업여성을, 서구적 문화를 추종하는 ‘이중인격’적 인물들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여성이 ‘국민성에 독이 되는 댄스나 마작 등에 흥미를’ 가진다면, ‘일본 부인이 아니다. 그런 여성은 죽어버리거나, 미국으로나 가버려야 한다.’³⁷⁾라고 할 정도로 남성적 영역을 넘보는 여성은 배제되어야 할 ‘비여성’, 예비 ‘비국민’이었다.

4) 일본적 전통의 옹호

서양문화에 대한 반감과 신여성에 대한 반감을 동일시하려는 움직임은 전술한 항목들에서도 눈에 띈다. 「일본취미와 가옥」에서는 일본 전통적 문화 양식을 고수, 보존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다.³⁸⁾ 심지어 인격이라는 단어를

나이를 먹으면 점차 웃지 않게 된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는 하나 여자는 수치심의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수치심을 잃은 노파만큼 추한 것은 없다. 옛날이야기에 나오는 할아버지는 대개 선인이 많은데 할머니는 심술쟁이가 많은 것은 수치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片岡(1934) pp.46-49

36) ‘댄스강습회가 비밀리에 개최되었다. 모인 사람은 밤의 불빛을 연모하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 주요 등장인물이었다...(중략)...이들은 남자와 포옹하고 어찌다 날이 새는 줄도 모른 채 춤추는데 미쳤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금지령이 내려지자...(중략)...그녀들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다. 교단에 서도 부들부들 떨고 있는 여교사의 모습에는 히스테리의 조수가 밀려와 여학생들 모두가 괴로워하는 넌센스한 상황이 연출되었 다.’ 『에로경성 조감도 직업편』 pp.215-222.

37) 片岡(1934) 「세상을 윤택하게 하는 취미(世のうるほひとなる趣味)」 pp.55-58.

사용하면서 ‘이중인격이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생활은 삼중, 사중이어도 괜찮지만 인격은 일본 인격이어야만 한다’³⁹⁾는 주장을 펼친다. ‘이중인격’이라는 윤리적 공격의 레토릭이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는 여성에게 향하는 것이다.

가타오카는 『마음의 화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취미로 회귀하고 이를 복원할 것을 주장한다. 서양 문화의 수용은 미적추구의 불문율을 침범하는 것이자 착란이라고 비난하며, 최근의 서구식 화장법은 자연에 반하는 것으로 괴물을 제조⁴⁰⁾한다고 표현했다. 『미국 부인관』에서는 서양문화 유입 및 서구 여성론을 받아들인 여성들을 비판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여성론은 서양 여성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으며 여성이 쓴 여성론도 없다. 일본 여성이면서도 서양 흉내만을 내려’하며, ‘일본 여자는 일본 여자일 때 행복’⁴¹⁾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반 여성 및 당시의 여성론자들을 향한 비판이었다.

이러한 비판은 『개성과 풍격』⁴²⁾에서 국풍(國風)에 관한 논의로 이어진다. ‘일본에 사는 일본인은 일본의 국풍에 따르면 된다.’, ‘여자는 장지문과 같다고 한다. 장지문을 떼어 다른 집 창에 끼우면 맞지 않지만 그 집의 창틀을 깎을 수는 없다. 장지문을 깎아서 끼워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일본 전통의 고수와 가부장적 논의는 자연스럽게 합체된다.

5) 여성의 능력

『직업부인의 현황』⁴³⁾에서 가타오카는 ‘어느 관청도 은행, 회사도 여자가 중요한 지위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여자는 이 방면에 재주가 없으며, 문서정리나 계산, 타이핑이나 전화 등 비교적 가치가 없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여성 직업 분야의 편중을 여성의 능력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돌리고 있다. 또한 『요리의 핵심』에서는, 『현대여성의 해부』에 이어, 남녀가 미각의 발달에 있어 능력의 차이를 보인다는 주장을 한다.⁴⁴⁾ 여러 텍스트에서

38) 일본부인은 성격에 맞지 않는 서양 취미를 동경하지 말고 일본취미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 할 것이다. 특히 가옥에 대해서도. 일본취미를 보존해야 한다. 片岡(1934) pp.22-26.

39) 片岡(1934) 『이중생활의 비판』 pp.26-28.

40) 片岡(1934) pp.28-32.

41) 片岡(1934) pp.32-35.

42) 片岡(1934) pp.72-75.

43) 片岡(1934) pp.36-40.

반복되는 대목이지만 근거가 희박하며 사회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비논리적 일반화가 엿보인다.

여성 영역론에서 긍정적인 천부적 영역을 논했다면, 『인생과 미신』에서는 여성과 연관된 부정적 영역에 대해 거론한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미신을 잘 믿는다’, ‘사이비종교의 경작은 여자의 발(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믿는 신 즉 지도자의 명령이라면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고, 부인의 길이나 정조관념도 전혀 안중에 없는 경우가 많다. 미신의 영역에 빠지면 ‘남편 따위는 밭고 귀찮은 존재’일 뿐이니, 이렇게 되지 않도록 ‘확고한 합리적 신념에 기초하여 천직을 완수한다는 각오를 갖는 것이 일본부인으로서의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온순함의 강조와 여성교육의 관점

가타오키는 『온나이마가와쇼(女今川抄)』⁴⁵⁾에서 ‘이마가와(今川)⁴⁶⁾에 빗대어 여성이 스스로 다스려야 할 사항’을 들고 있다. “하나, 평소 마음이 빼뿔어져 여자의 길에 명료하지 않은 것(一、常の心ざしかたましく女の道明かならざる)”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1700년 간행된 『온나이마가와』, 혹은 이를 저본으로 1880년에 간행된 『온나이마가와』(関葦雄 작) 계통을 참고로 한 것으로 보인다.⁴⁷⁾ 일련의 『이마가와쇼』물(物)은 부모와 남편에 대한 복종을 주 내용으로 하며, ‘빼뿔어진 마음(心かだまし)’과 ‘순수함(心すなほ)’을 중요한 문제로 다루는데, 가타오키는 23개조와 후문(後文) 형식 그대로를 인

44) 의식주 셋 중에서 여자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옷이다...(중략)..여자는 단조로운 맛에 만족할 수 있는데 남자는 복잡한 맛을 선호한다...(중략)..여자 중에 맛을 알도록 혀의 훈련을 하고 있는 이가 몇이나 있겠는가...(중략)..따라서 현명한 부인은 자신의 기호와 달린 남자의 요구를 고려하고, 어리석은 여자는 남자도 자신과 같은 식품을 먹어도 별 상관없다고 해버린다. 이러한 일도 소비생활의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片岡(1934) pp.18-22.

45) 片岡(1934) pp.92-94.

46) 이마가와란 남북조시대의 무장이자 학자 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 今川貞世, 1326~1420)이 집필한 문무양도를 강조한 무로마치 초기를 대표하는 교육서(武家家訓) 『이마가와조(今川狀)』를 지칭한다. 이에 기초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온나이마가와(女今川)』가 메이지기까지 250종 이상의 판본과 20종이상의 이본(異本)이 있는 가장 많이 보급된 여자용 오라이(往来:초급 교육서)였다.

47) 『往来物解題辞典』 http://www.bekkoame.ne.jp/ha/a_r/B4a.htm(2015..02.01) 참조

용하여 여성이 지켜야할 덕목을 소개하고 있다.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나를 내세우며 천도(天道)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 등 가정 내에서의 순종에 관련된 항목, ‘젊은 여자들이 쓸데없이 사찰 등에 다니며 즐기는 것’, ‘친한 친척이라도 남자에게 친밀하게 대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등, 여성의 행동과 사교를 가정의 범위 안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항목 등 대부분 가정 안에서의 인간관계라는 범주에 있어 금지해야 할 사항들의 예를 들고 있다.

가타오카가 구체적 여성의 이름을 들어 일본여성의 표본으로 칭송하고 있는 인물은 시모다 우타코(下田歌子)이다. 시모다는 1920년 조선 방문시의 강연문이 「현대부인의 각오」라는 제목으로 『조선 및 만주』 제168호(1921.11. pp.72-74)에 게재된 바 있는데, 이 강연에서는 자선심과 생활개선이 여성에게 필요하다는 주장과, 현대의 동양부인은 연구심이 부족하다는 훈계를 하고 있다. 「여자와 좌작진퇴(座作進退)」⁴⁸⁾에서 가타오카도 여성으로서의 보기 좋은 몸가짐에 대해 역설하면서 메이지의 세이쇼 나곤이라고 불린 시모다의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근대 일본의 대표적 여성교육자 시모다는 황족교육을 담당한 여관 출신 교육자이자 학교 경영자였다. 신여성 담론에 거부감을 보이던 가타오카가 ‘시모다 여사’만은 높게 평가한 것은 그녀가 직업여성이었지만 천황제를 중심으로 ‘일본의 전통’을 지키는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이었다.

V. 결론

식민지 지배 권력은 식민초기부터 1930년대까지는 식민체제에 순종적인 식민지 여성을 양성하는데 주력했으며 전시체제로 돌입한 이후에도 여성의 역할에 주목하여 국가적인 의미를 여기에 부여하고자 했다.

가타오카가 1929년에 저널리스트로서 본격적으로 출발하면서 수필 형식을 통해 식민지 조선사회의 문화와 여성에 대해 논한 『유머수필 신선로』에 이어서 발표한 『현대여성의 해부』와 『쇼와 일본의 부인』은 여성교육에 대한 포부

48) 片岡(1934) pp.66-69.

를 가지고 집필한 본격적 여성론이자, 역설적으로 가타오카 히스이의 여성에 대한 혐오를 확인할 수 있는 글이다. 호색한이 여성 혐오적⁴⁹⁾이라는 지적처럼, 대극적인 두 기호는 실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최근 한국의 인터넷에 범람하는 여성혐오적 댓글에서도 이는 쉽게 확인된다. 새롭게 등장한 강한 여성상에 대한 공포는 자기 방어기제를 형성하며 혐오를 증폭시키고, 폭력적 언설을 낳는다. 이러한 현상이 가타오카가 이상의 텍스트들을 집필한 근대기와 매우 흡사한 구도로 현재 빈출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1930년대 중반까지 대중적 관심을 모았던 조선의 여성담론중 하나는 신여성과 여기자에 관한 ‘소문’이었다. 1910년대 일본에서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신여성’은, ‘모던걸’ 과 동시에 복합적으로 1920년대 조선으로 유입되었고, 흥미와 주목 및 질책과 조소가 함께 했다. 신여성에 대한 흥미는 1930년대가 되면서 여기자로 이동하였고, 1933년 이후가 되면 여기자의 존재에 대한 흥미도 저널리즘계의 여기자들은 점차 종적을 감추게 된다.⁵⁰⁾

여성과 관한 자료들을 드러내어 제시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남성 지배의 시선과 권력 작용을 읽어내야 한다는 지적⁵¹⁾은 신여성 연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관심과 욕망에 의해 생성되는 일정한 상(像)에 관한 온존 욕구는 집착이다. 제국의 지배층 남성의 시선은 (특히 식민지 여성의 경우는 더욱) 안정적 아이덴티티를 구축한 불변의 존재로서의 여성, 지배 가능한 순종적, 순응적 여성상을 요구했다. 가타오카 기사부로의 여성에 대한 시선에 주목한 본 논문은 이러한 시선의 근저에 혐오의 논리가 내재되어 있음에 착목했다.

이글에서 다룬 텍스트는 재조일본인 남성 교육자의 식민지 조선의 문화 및 세태를 풍자한 수필, 그리고 식민지 여성을 포함한 일본 여성에 대한 교훈서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속에 기술된 여성론적 발화는, 『쇼와 일본의 부인』의 「서(序)」를 집필한 와타나베 노부하루처럼 여성비판을 공유함으로써

49) 上野千鶴子(2010) p.16

50) 김연숙(2011) 『그녀들의 이야기, 신여성-한국 근대문학과 젠더 연구』 역락 pp.136-159

51) 김경일(2004)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20세기 전반기 신여성과 근대성』 푸른역사 pp.28-32

공동의 아이덴티티를 구성할 수 있는, 일본인 남성을 향해있다. 이러한 ‘말하기’는 ‘호모소셜’의 관계성이 식민 지배 권력을 유지하고 온존시킬 수 있도록 여성성 비판을 통해 식민지 지배층을 중심으로 하는 남성성을 구축한다.

1930년대 말부터 본격화되는 제국 일본의 군국주의가 여성의 모성을 동원해가는 과정은, 가타오카가 여성을 논하면서 남성주체를 성립시키는 ‘남자말하기’에서 보이듯, 여성 혐오 논리 속에 구조적으로 잠재되어 있다. 가타오카의 논리가, 분수를 알고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여성성을 온존시켜야한다는 주장과, 여성의 미개함을 벗어나 이성화해야한다는 주장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은, 변화하는 불온한 것들을 배제하고 싶은 욕구와, 안정적인 기반을 지키고 싶은 온존에의 상반된 욕구가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제국의 여성 혐오가 가지는 내적 모순이자 한계였다. 하지만 제국 일본은 모성이라는 개념을 본질론적 가치개념으로 무장시키는 ‘교육’을 통해 여성의 재생산 능력 및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가타오카의 여성론은 1930년대의 이러한 양상을 명확하게 비추어내고 있다.

<參考文獻>

- 김경일(2004)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20세기 전반기 신여성과 근대성』 푸른역사 pp.28-32
- 김연숙(2011) 『그녀들의 이야기, 신여성-한국 근대문학과 젠더 연구』 역락 pp.136-159
- 김효순 외 편역(2012) 『조선 속 일본인의 에로경성 조감도: 여성직업편』 문 pp.47-51, pp.215-222
- 안태윤(2006) 『식민정치와 모성 : 총동원체제와 모성의 현실』 한국학술정보 pp.13-30, pp.258-259
- 이규환(1969) 일제시대의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논총』(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제15집
- 이선이 『근대 중국과 일본의 언론매체에서 보이는 조선여성 표상 연구』 『동양사학연구』 제116집 p.248
- 조경원(1996) 유교 여훈서의 교육원리에 관한 철학적 분석. 『여성학논집』 제13집 p.281
- 한국여성연구회(1992) 『한국여성사-근대편』 풀빛 p.61
- 후지와라 하지메 저, 황영식 역(2006) 『고이즈미와 일본 광기와 망령의 질주』 시대의 창 p.188

- 片岡喜三郎(1929) 『ユウモア随筆神仙抄』近澤出版 pp.67-102 (가타오키 기사부르(2014)
 엄인경 외 공역 『유머수필 신선로』 학고방)
- _____ (1931) 『現代女性の解剖』朝鮮教育新聞社 pp7-11, pp.102-111
- _____ (1934) 『昭和日本の婦人』朝鮮教育新聞社 pp1-94
- 上野千鶴子(2010) 『日本のミソジニー』紀伊国屋書店 pp.9-10, p.16
- 「현대부인의 각오」 『조선 및 만주』 제168호(1921.11) pp.72-74
- 往来物解題辞典 http://www.bekkoame.ne.jp/ha/a_r/B4a.htm(2015.02.01)

접 수 일: 6월 30일
 심사완료: 7월 25일
 게재결정: 7월 29일

<Abstract>

Empire and Misogyny

-The works of Kataoka Kisaburo, a Japanese resident in colonial Joseon-

This study focuses on the misogyny of empire by examining *Humor Essay Shinseonro* (1929), *Anatomy of Japanese Women*(1931), and *Ladies of Showa Japan*(1934), all written by Kataoka Kisaburo, an educator and journalist in colonial Joseon for more than 20 years. Kataoka's three books have never been considered academic topics, yet include important information about imperial views on women.

In *Humor Essay Shinseonro*, objective views on women are very easily found, but ironically, Kataoka's second book, *Anatomy of Japanese Women* was almost all about women.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the history and system of misogyny in imperial Japan, including colonial Joseon, through the discourses on women in Kataoka's texts, especially in the last one, *Ladies of Showa Japan*, which clearly shows the strong misogyny of an imperial and patriarchal nation.

Moreover, the idea of motherhood was emphasized more strongly in it than in Kataoka's two other texts, even though it was written before Japan's national mobilization in the late 1930s.